

## 3 MARCH

3.6(thu) - 9(sun)  
weekdays 8pm, sat 7pm, sun 4pm  
**<키스 앤 크라이>**  
"Kiss & Cry" by Michèle Anne De Mey &  
Jaco Van Dormael  
R 70,000 / S 50,000 / A 30,000

3.15(sat) 7pm  
**오마르 소사 & 파올로 프레수**  
Omar Sosa & Paolo Fresu  
R 80,000 / S 60,000 / A 40,000

3.21(fri) - 23(sun)  
fri 7:30pm, sat 2pm & 7pm, sun 3pm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무사시>**  
"Musashi" directed by Yukio Ninagawa  
R 70,000 / S 50,000 / A 30,000

3.28(fri) - 31(mon)  
weekdays 8pm, sat 7pm, sun 4pm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Full Moon>**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Vollmond"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 4 APRIL

4.2(wed) 8pm  
**뱅 온 어 캔 올스타**  
Bang on a Can All-Stars  
R 70,000 / S 50,000 / A 30,000

4.12(sat) 7pm  
**웨이인 쇼터 콰르텟**  
Wayne Shorter Quartet  
VIP 110,000 / R 90,000 / S 60,000 / A 40,000

4.29(tue) 8pm  
**조르디 사발 & 에스페리옹 21 '동양과 서양'**  
Jordi Savall & Hespèrion XXI "Orient & Occident"  
R 90,000 / S 70,000 / A 50,000 / B 30,000

4.30(wed) 8pm  
**필립 자로스키 &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  
Philippe Jaroussky & Venice Baroque Orchestra  
VIP 110,000 / R 90,000 / S 60,000 / A 40,000

## 5 MAY

5.16(fri) - 17(sat) fri 8pm, sat 4pm  
**얀 클라타 연출 <어머니와 조국>**  
"A piece on Mother and Fatherland" directed by Jan Klata  
R 70,000 / S 50,000 / A 30,000

5.31(sat) - 6.1(sun) sat 8pm, sun 4pm  
**필립 드쿠플레 무용단 <파노라마>**  
"Panorama" by Philippe Decouffé, Compagnie DCA  
R 70,000 / S 50,000 / A 30,000

## 6 JUNE

6.4(wed) - 6(fri) 7:30pm (6.6 3pm)  
**도이체스 테아터 <도둑들>**  
"Thieves" by Dea Loher, directed by Andreas Kriegenburg,  
Deutsches Theater Berlin  
R 70,000 / S 50,000 / A 30,000

6.7(sat) 7pm  
**고란 브레고비치 & 웨딩 앤 퓨너럴 오케스트라 <집시를 위한 샴페인>**  
Goran Bregović and his Wedding and Funeral Orchestra  
"Champagne for Gypsies"  
R 80,000 / S 60,000 / A 40,000

6.14(sat) - 15(sun) sat 7pm, sun 4pm  
**아크람 칸 <데쉬>**  
Akram Khan "DESH"  
R 70,000 / S 50,000 / A 30,000

## 10 OCTOBER

10.2(thu) 8pm  
**테츨라프 콰르텟**  
Tetzlaff Quartet  
R 80,000 / S 60,000 / A 40,000

10.3(fri) 7pm  
**소프라노 서예리 '바로크 & 현대'**  
Soprano Yeree SUH "Alte & Neue"  
R 70,000 / S 50,000 / A 30,000

10.9(thu) - 11.8(sat)  
weekdays 8pm, weekend 3pm & 7pm (10.9 7pm)  
**뮤지컬 <보이첵>**  
Musical "Woyzeck"  
R 80,000 / S 60,000 / A 40,000

## 11 NOVEMBER

11.9(sun) 7pm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 바흐 솔리스트들 서울**  
Christopher Hogwood & Bachsolisten Seoul  
R 90,000 / S 70,000 / A 50,000 / B 30,000

11.13(thu) - 14(fri) 8pm  
**뱅자맹 밀피에 & L.A. 댄스 프로젝트**  
Benjamin Millepied & L.A. Dance Project  
R 70,000 / S 50,000 / A 30,000

11.19(wed) - 30(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sun 4pm  
**김광보 연출 신작**  
New creation directed by KIM Kwang-Bo  
R 50,000 / S 40,000 / A 30,000



LG ARTS  
CENTER  
CoMPAS

14

L G 아 트 센 터

2014년 기획공연 시즌

# LG아트센터 2014년 기획공연 CoMPAS 14

- 패키지 티켓 오픈  
2014. 1. 6(월) 9am
- 개별 공연 티켓 오픈  
2014. 1. 13(월) 9am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을  
더 경제적으로 즐기는 할인 방법!

## CoMPAS 패키지

좋은 공연을 보는 현명한 습관!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을 가장 좋은 좌석에서,  
가장 저렴하게 보는 방법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후반부를 참조하세요.)

\*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혜택!

- **최고 40%, 최대 532,000원 할인 혜택!**
- 패키지 카드 발급 - 카드 제시시,  
LG아트센터 메인 로비 카페 10% 할인
- 동행인 할인 20%, 최대 2매  
(패키지 선택 공연 대상, 전화로 예매 가능)

## 신한카드 10% 할인

모든 신한카드로  
LG아트센터 기획공연 결제 시  
10% 할인 제공

\* 패키지 할인 및 기타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조기에매 기간(~2/14)에는 조기에매 할인으로 적용

## 몽치면 싸다! '뭉싸 할인'

좋은 공연 혼자만 보긴 너무 아깝다!  
함께 보고, 할인도 받자!

'연극 & 무용' 장르 공연 중 한 편의 공연,  
동일 회차 R석 4매 이상 구매 시  
20% 할인  
2014. 1. 13 - 11. 28



## 조기에매 할인

좋은 자리는 언제나 일찍 사라진다.  
조기 예매로 좋은 좌석 짚하고,  
아트포인트도 쌓을 수 있는 기회!

개별 공연 구매 시 10% 할인  
(포인트 적립 감산시 15% 혜택)  
2014. 1. 13 - 2. 14



## 청년 할인

청년들이여, 티켓 값은 생각만큼 비싸지 않다!  
CoMPAS14 전 공연에 제공되는 20% 청년 할인!  
1987년 1월 이후 출생자부터, 본인 1매 한정

\* 주의사항

- 청년 할인은 LG아트센터를 통한 예매 시에만 적용됩니다.
- VIP석과 '러시 아워 콘서트'는 제외됩니다.
- 티켓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미 구입한 티켓에 대해서 청년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존 학생 할인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연극 & 무용

THEATRE & DANCE

<b>3.6(목) - 9(일)</b> 평일 8pm, 토 7pm, 일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b>&lt;키스 앤 크라이&gt;</b> "Kiss & Cry" by Michèle Anne De Mey & Jaco Van Dormael
<b>3.21(금) - 23(일)</b> 금 7:30pm, 토 2pm & 7pm, 일 3pm R 70,000 / S 50,000 / A 30,000	<b>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lt;무사시&gt;</b> "Musashi" directed by Yukio Ninagawa
<b>3.28(금) - 31(월)</b> 평일 8pm, 토 7pm, 일 4pm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b>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lt;Full Moon&gt;</b>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Vollmond"
<b>5.16(금) - 17(토)</b> 금 8pm, 토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b>안 클라타 연출 &lt;어머니와 조국&gt;</b> "A piece on Mother and Fatherland" directed by Jan Klata
<b>5.31(토) - 6.1(일)</b> 토 8pm, 일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b>필립 드쿠플레 무용단 &lt;파노라마&gt;</b> "Panorama" by Philippe Decouffé, Compagnie DCA
<b>6.4(수) - 6(금)</b> 7:30pm (단, 6.6 3pm) R 70,000 / S 50,000 / A 30,000	<b>도이체스 테아터 &lt;도둑들&gt;</b> "Thieves" by Dea Loher, directed by Andreas Kriegenburg, Deutsches Theater Berlin
<b>6.14(토) - 15(일)</b> 토 7pm, 일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b>아크람 칸 &lt;데쉬&gt;</b> Akram Khan "DESH"
<b>10.9(목) - 11.8(토)</b> 평일 8pm, 주말 3pm & 7pm (단, 10.9 7pm) R 80,000 / S 60,000 / A 40,000	<b>뮤지컬 &lt;보이책&gt;</b> Musical "Woyzeck"
<b>11.13(목) - 14(금)</b> 8pm R 70,000 / S 50,000 / A 30,000	<b>벵자멩 밀피에 &amp; L.A. 댄스 프로젝트</b> Benjamin Millepied & L.A. Dance Project
<b>11.19(수) - 30(일)</b> 평일 8pm, 토 3pm & 7pm, 일 4pm R 50,000 / S 40,000 / A 30,000	<b>김광보 연출 신작</b> New creation directed by KIM Kwang-Bo

# 음악

CLASSICAL / JAZZ / WORLD MUSIC

<b>3.15(토)</b> 7pm R 80,000 / S 60,000 / A 40,000	<b>오마르 소사 &amp; 파올로 프레수</b> Omar Sosa & Paolo Fresu
<b>4.2(수)</b> 8pm R 70,000 / S 50,000 / A 30,000	<b>뱅 온 어 캔 올스타</b> Bang on a Can All-Stars
<b>4.12(토)</b> 7pm VIP 110,000 / R 90,000 / S 60,000 / A 40,000	<b>웨인 쇼터 콰르텟</b> Wayne Shorter Quartet
<b>4.29(화)</b> 8pm R 90,000 / S 70,000 / A 50,000 / B 30,000	<b>조르디 사발 &amp; 에스페리옹 21 '동양과 서양'</b> Jordi Savall & Hespèrion XXI "Orient & Occident"
<b>4.30(수)</b> 8pm VIP 110,000 / R 90,000 / S 60,000 / A 40,000	<b>필립 자로스키 &amp;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b> Philippe Jaroussky & Venice Baroque Orchestra
<b>6.7(토)</b> 7pm R 80,000 / S 60,000 / A 40,000	<b>고란 브레고비치 &amp; 웨딩 앤 퓨너럴 오케스트라</b> <b>&lt;집시를 위한 샴페인&gt;</b> Goran Bregović and his Wedding and Funeral Orchestra "Champagne for Gypsies"
<b>10.2(목)</b> 8pm R 80,000 / S 60,000 / A 40,000	<b>테츨라프 콰르텟</b> Tetzlaff Quartet
<b>10.3(금)</b> 7pm R 70,000 / S 50,000 / A 30,000	<b>소프라노 서예리 '바로크 &amp; 현대'</b> Soprano Yeree SUH "Alte & Neue"
<b>11.9(일)</b> 7pm R 90,000 / S 70,000 / A 50,000 / B 30,000	<b>크리스토퍼 호그우드 &amp; 바흐 솔리스트들</b> Christopher Hogwood & Bachsolisten Seoul

"Kiss &amp; Cry"

## 《키스 앤 크라이》

###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사랑스럽고 마술과도 같은 이 한편의 작품이 있고 있었던 당신의 모든 기억을 깨운다. <토토의 천국>, <제 8요일>로 유명한 벨기에 영화감독 자코 반 도마엘과 그의 부인이자 안무가인 미셸 안느 드 메이가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감성이 만나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한 여인이 평생을 걸쳐 사랑했던 다섯 명의 연인에 대한 사랑의 기억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누구에게나 생각하면 가슴 저릿한 사랑의 기억은 있다. 때로는 어린 시절 풋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미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떠나 보냈을지도 모른다. 꺼내기 아픈 기억으로 가슴 한편에 묻어 두었을 수도 있고, 행운처럼 지금 그와 함께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사랑은 그렇게 내 인생을 지나갔을 것이다. 한때 사랑했으나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아련하게 사라져 간 사람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우리 기억 어딘가에 떨어져 숨어버린 그들을 찾고 싶다.

본래 '키스 앤 크라이'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자신의 점수를 기다리며 코치와 앉아있는 공간을 일컫는다. 마음을 즐기며 앉아있는 그곳에서 짧은 순간 선수들은 기쁨에 웃고 키스하고, 때로는 안타까움에 울음을 터뜨리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이 작품은 이 공간으로부터 이름을 따왔다.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 것은 손으로 연기하는 두 명의 무용수들과 무대를 가득 채운 작은 미니어처들, 그리고 그것들을 실재 없이 따라다니는 카메라와 스태프들이다. 쏘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싣고 달리는 듯 작은 기차 한대가 무대 위를 돌고 있고, 물을 가득 채운 수조와 모래 위의 집을 배경으로 춤추는 손가락과 인형들은 마법처럼 한편의 서정적인 영화가 되어 커다란 스크린에 투사된다.

"손가락과 장난감 같은 미니어처들을 카메라로 찍어 한편의 영화로 만든다"는 설명이 혹시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되어 이 아름답고 소중한 작품을 외면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 이 공연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림과 이야기, 그리고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6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관객의 가슴에 아련한 추억의 파고를 일으키고 있는 작품, 이제 우리를 찾아온다.

"Kiss & Cry" is an original show confronting film, dance, words, theatre and brilliant DIY, a piece in which the audience is invited to watch a thoroughly distinctive choreographic performance, a film being screened and the film being made - all at the same time. Various codes come together: cinematographic writing, the stage presence of theatre and the sensory register of dance. The main characters are hands which engage us with their sensual presence and nakedness. The set of miniatures they move around testifies to work of absolute precision.

**3.6** thu - 9 sun

 weekdays **8pm**

 sat **7pm**

 sun **4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90분, 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with no interval

 한국어 내레이션이  
제공됩니다.

"Kiss & Cry" by Michele Anne De Mey & Jaco Van Dormael  
 In collective creation with Gregory Grosjean, Thomas Gunzig, Julien Lambert, Sylvie Olivé & Nicolas Olivier  
 Production: Charleroi Danse, Choréographique centre of the fédération Wallonie Bruxelles Le Manège, Mons  
 Coproduction: Les théâtres de la ville de Luxembourg  
 Agent for Korea: La Compagnie des Petites heures

## 오마르 소사 &amp; 파올로 프레수

## 라틴 스피릿과 이탈리아인 소울이 만났다

라틴 재즈의 심장으로 불리는 오마르 소사(Omar Sosa)와 최고의 이탈리아인 트럼펫터 파올로 프레수(Paolo Fresu)가 만났다. 쿠바에서 태어나 에콰도르, 미국, 스페인 등을 거쳐 세계 음악을 온몸으로 흡수한 천재 피아니스트이자 퍼커션과 보컬에도 모두 능한 라틴 재즈의 거장인 오마르 소사의 음악에는 '온 세상'이 들어있다. 한편, 엔리코 라바(Enrico Rava) 이후 최고의 이탈리아인 트럼펫터로 칭송받는 파올로 프레수는 특유의 감수성 넘치고 로맨틱한 연주로 "마일스 데이비스를 닮은 사색적인 연주자"란 평을 들으며 세계 음악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350여 개의 음반을 통해 현대음악, 고전음악, 재즈, 월드뮤직, 민속음악을 오가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쳐온 프레수의 음악에는 지중해의 온화함과 따스함이 묻어난다.

2006년 독일 함부르크 콘서트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그들의 특별한 음악적 화학 작용을 직감했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어를 갖고 음반을 함께 발표하기로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존경해 마지않는 아티스트, 자크 모렐렌바움(Jaques Morelenbaum)을 이 프로젝트에 초청하여 2011년 앨범 〈알마〉(‘영혼’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를 발표한다. 재즈와 쿠바 음악, 월드뮤직이 혼합된 이 앨범은 라틴 음악의 화려함과 이탈리아인 재즈의 우아하고 낭만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 매우 서정적이고 회화적이며 감미롭다. 질베르토 질, 카에타노 벨로조,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등과 함께 작업한 브라질이 낳은 걸출한 첼리스트 모렐렌바움은 총 12곡 가운데 4곡의 연주와 편곡에 참여해 앨범의 품격을 한껏 드높였다.

오마르 소사와 파올로 프레수, 그 이름만으로도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두 거장과 함께 당신의 감수성에 촉촉함을 더해보자.

Six-time Grammy-nominated Cuban composer and pianist, Omar Sosa, is coming to Korea with the celebrated Italian trumpet and flugelhorn player, Paolo Fresu. They have collaborated on many projects since they first encountered at a concert in 2006. To deepen their special musical chemistry, they recorded an album, "Alma", meaning 'soul' in Spanish. Sosa and Fresu will play music from the album, which will take you to a great musical journey from powerful Cuban music through melodic jazz to world music.

3.15<sup>sat</sup>

7pm

R 80,000

S 60,000

A 40,000

“지난 날 즐거웠던 여행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듯한 아련한 감성의 음악”

MM재즈

“이 위대한 연출가가 이토록 짜릿하고  
마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조명과 음악, 스펙터클이 한데 어우러져  
처음에는 놀라움을 안겨주더니,  
이내 우리를 심오한 철학적 깨달음으로  
이끌어 간다.”

★★★★★ 영국, The Independent



© Takahiro Watanabe

“Musashi” directed by Yukio Ninagawa

##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무사시〉

후지와라 타츠야, 미조바타 준페이 그리고 일본 최고의 배우들이 뭉쳐다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한 최후의 진검 승부가 다가온다

막이 오르자마자 순식간에 관객을 사로잡는 연극의 힘! 세계적인 연극 거장 니나가와  
연출의 마법을 다시 만난다. 2011년 처음으로 한국 관객들을 찾았던 니나가와 연출가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자신을 필두로 세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일본  
현대 연극의 수준을 가늠케 해주었다. 이제 그가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무사시〉로  
다시 한국을 찾아온다.

일본의 ‘국민 극작가’로 불렸던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 1934~2010)가 극본을 맡아  
2009년 일본에서 초연된 〈무사시〉는 이어 런던의 바비칸 센터와 뉴욕의 링컨 센터,  
싱가포르의 에스플레네이드 등에서 공연되며 세계 관객들의 열광적인 기립 박수와  
평론가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던 작품이다. 에도 시대 초기인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이자 전설적인 무사로 이름을 날렸던 미야모토 무사시와  
그의 숙명적인 라이벌 사사키 코지로, 이 두 검객 간에 벌어지는 최후의 진검 승부를  
니나가와 연출가 특유의 아름다운 무대 미학과 시종일관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풀어간다.

영화 〈데스 노트〉, 〈배틀 로얄〉, 연극 〈햄릿〉, 〈신도쿠마루〉, 드라마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여름〉 등으로 일본의 대표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한 후지와라 타츠야(무사시 역)와 드라마  
〈신참자〉, 〈보스〉, 영화 〈하프 웨이〉 등으로 일본의 차세대 청춘 스타로 떠오른 미조바타  
준페이(코지로 역)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는 숙명의 대결을 펼쳐갈 두 라이벌로  
분해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연기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극본, 연출,  
연기, 무대, 어느 한 부분에서도 빈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만하게 채워진 작품 〈무사시〉.  
통찰력과 세련미, 그리고 노련함으로 무르익은 거장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느껴보자.

Celebrated director Yukio Ninagawa will return to LG Arts Center with his masterwork  
“Musashi”. Written by the famous Japanese playwright, Hisashi Inoue, “Musashi”  
has been applauded by the audience and critics around the world since the  
premiere in Tokyo in 2009. Set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play focuses on the  
rivalry between two legendary swordsmen, Musashi Miyamoto and Kojiro Sasaki,  
who met again six years after the duel. Using the contemporary comedy elements  
of Japanese Noh and Kyogen, “Musashi” explores the futility of vengeance as two  
bloodthirsty swordsmen await their final showdown. Starring two of Japan’s leading  
young actors Tatsuya Fujiwara and Junpei Mizobata, this comedy mixed with  
dramatic tension and staged on a beautiful set will keep you entertained for 3 hours.

3.21 fri - 23 sun

fri 7:30pm  
sat 2pm & 7pm  
sun 3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3시간 10분,  
휴식 20분 포함

DURATION  
3hrs 10mins.  
incl. an interval(20mins)

일본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Japanese  
with Korean Subtitles

제작  
일본 호리프로

Produced by  
HoriPro Inc.

#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Full Moon〉

## 피나 바우쉬가 공연 예술계에 남긴 위대한 유산

2009년 6월 갑작스럽게 피나 바우쉬를 떠나 보낸 세계 무용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었다. 피나 바우쉬 만큼 세계 공연계의 경향과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예술가도 드물었다. 우리는 그녀가 이룬 성과와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녀를 떠나 보내고서 다시금 깨달았다. 그래서일까. 세계 공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앞다투어 그녀의 작품을 초청하고 있고, 이 때문에 피나 바우쉬 무용단은 오히려 그녀가 있을 때보다 더욱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런던에서는 올림픽을 기념해 총 10개의 피나 바우쉬 작품을 연속으로 공연하기도 했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간 부퍼탈과 그 주변 도시에서는 피나 바우쉬 무용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마치 모두가 피나 바우쉬의 빈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다.

피나 바우쉬는 LG아트센터와 2000년 〈카네이션〉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2005년 한국을 소재로 한 〈러프 컷〉을 포함해 2010년까지 LG아트센터 무대에서 총 6편의 작품을 소개해 왔다. 그리고 3D 영화 〈PINA〉를 통해서 더욱 잘 알려진 〈Full Moon〉은 그간 주로 선보여왔던 도시 시리즈가 아닌 피나 바우쉬가 온전히 자신의 무용단만을 위해 만든 작품이다. 피나 바우쉬와 오랜 호흡을 자랑하는 관록의 무용수들과 젊은 무용수들의 조화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인생이 가져다주는 황홀경과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잘 표현한다. 온통 검은 무대 위에 놓여있는 커다란 바위, 발목까지 차 올라오는 물 위에서 미끄러지고 수영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무용수들. 모든 피나 바우쉬 작품이 그렇듯이 이 작품도 특유의 유머와 격동적인 춤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여운으로 가슴에 남을 것이다.

피나 바우쉬 사후 5년이 되도록 아직 새로운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세계 공연예술계는 피나 바우쉬의 위대한 유산이 사라질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더욱 소중한데, 우리가 언제까지 피나 바우쉬의 작품을 볼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Legendary choreographer Pina Bausch's Tanztheater Wuppertal returns to LG Arts Center with the splendid piece "Full Moon (Vollmond)". Created by Pina Bausch in 2006, "Full Moon" conceives as a work full of delightful moments and ecstasies, like her other pieces, but at the same time instilled with danger and anxiety in life. Described "the kind of carnivalesque celebration" by London's Telegraph, "Full Moon" in which a huge rock and deep water take up a large part of the stage will present to us the celebration for our life in a unique manner that only Pina Bausch can create.

**3.28** fri -  
**31** mon

weekdays 8pm

sat 7pm

sun 4pm

VIP 12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공연 시간

2시간 30분, 휴식 포함

DURATION

2hrs 30mins

incl. an Interval



“절대적 수준의 작품.”

★★★★ 영국, The Telegraph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현대음악 작곡가를 적어도 한 명 이상 갖게 될 때까지 우리의 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데이빗 랭(작곡가, 뱅 온 어 캔 창단 멤버)



Bang on a Can All-Stars

## 뱅 온 어 캔 올스타

판에 박힌 음악 공연이 싫다면,  
그 해답은 바로 '뱅 온 어 캔 올스타'에 있다!

크로노스 콰르텟과 함께 미국의 자유분방한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뉴욕의 뱅 온 어 캔 (Bang on a Can)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인다.

1987년 예일대 동문인 세 명의 젊은 작곡가, 마이클 고든(Michael Gordon), 데이빗 랭 (David Lang), 줄리아 울프(Julia Wolfe)가 뉴욕의 이스트 빌리지의 한 갤러리에서 당시엔 전무후무한 12시간 마라톤 콘서트를 열면서 시작된 뱅 온 어 캔은 기존의 틀을 깨는 자유로운 형식과 새로운 사운드로 무장한 현대음악으로 젊은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25년이 넘도록 뉴욕의 진취적인 음악씬을 리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매년 6월 뉴욕에서 펼치고 있는 12시간 마라톤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은 스티브 라이히와 같은 거장의 작품에서부터 재기 넘치는 신예 작곡가들의 파격적인 음악까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끽하고 있다.

이번에 내한하는 '뱅 온 어 캔 올스타'는 피아노, 첼로, 베이스, 퍼커션, 기타,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앙상블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뱅 온 어 캔의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핵심 그룹이다. 첫 내한 공연에서 이들은 세 명의 창단 작곡가들의 곡을 비롯하여, 강통 따는 소리, 고양이 가 뛰어나는 소리 등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소리까지 음악의 재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음악으로 변모하는 '필드 레코딩(Field Recording)'이라는 최근의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와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진취적인 음악 정신의 대명사, 뱅 온 어 캔과의 첫 만남은 어쩌면 음악에 대한 당신의 고정관념을 뒤바꿔놓는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다.

Bang on a Can, multi-faceted contemporary music organization based in New York since late 1980s, reveals for the first time its foremost innovative dedication to new music to the Korean audience. Its in-house ensemble Bang on a Can All-Stars will present its three founders' works along with the recent project 'Field Recording,' a collection of the newly commissioned short pieces that incorporate already existing sounds of our life as important elements of music.

4.2 wed

8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2시간, 휴식 포함

DURATION

2hrs. incl. an interval

프로그램

- 데이빗 랭: 속이기, 거짓말하기, 훔치기 (1995)
- 마이클 고든: 마들린을 위하여 (2009)
- 줄리아 울프: 믿음 (1997)
- 필드 레코딩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도 기이하리만치  
놀라운 음악적 체험이었다.”

MM재즈



## Wayne Shorter Quartet

# 웨인 쇼터 콰르텟

### 재즈의 궁극이 돌아온다!

2010년 3월 2일, 웨인 쇼터 콰르텟의 첫 내한 공연은 재즈 팬들에게는 일대 '사건'으로 통한다. 백 퍼센트 즉흥으로 이루어진 이 날의 연주는 “네 명의 연주자가 주고 받는 찰나의 음악적 교감은 재즈라는 음악이 도달할 수 있는 빛나는 한 정점이었다”는 평을 끌어냈고, 공연 후에는 그 날의 감동과 여운을 나누려는 600여 명의 관객들이 로비에 남아 팬 사인회 후에도 한참을 돌아가지 못했다. 그야말로 재즈의 궁극을 눈 앞에 펼쳐 보였던 이 최강 라인업이 다시 한번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올해로 여든 한 살을 맞은 웨인 쇼터는 아트 블레이크(Art Blakey)와 재즈 메신저스(Jazz Messengers), 마일즈 데이비스 콰텟(Miles Davis Quintet), 그룹 웨더 리포트(Weather Report) 등 재즈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그룹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음악 언어를 창조해낸 위대한 색소포니스트 겸 작곡가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으로서 음악적 진보를 거듭해가고 있는 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미 9차례의 그래미상 수상경력에 빛나는 웨인 쇼터는 2013년, 재즈 명가 '블루 노트'와 43년 만에 재계약을 맺고 콰르텟 멤버들과 함께 새 음반 〈Without a Net〉를 발표하였는데, 그 반응이 매우 뜨겁다. “지구상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조화로우며 두려움 없이 음악을 탐험하는 그룹”이라는 평에서 “거장의 진면목을 보여준 명작으로 재즈의 역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까지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새 음반 발매와 더불어 2013년 웨인 쇼터가 태어난 지 여든 번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미주 투어가 2014년 아시아 투어로 이어진다. 이번에도 역시 신들린 연주로 관객을 흥분 시킬 드러머 브라이언 블레이드(Brian Blade), 황홀한 연주를 들려주는 베이시스트 존 패티투치(John Patitucci), 열정의 피아니스트 다닐로 페레즈(Danilo Perez)가 웨인 쇼터와 함께 라이브 재즈의 진면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만약, 당신이 라이브로 진정한 마스터의 음악을 듣고 싶다면, 웨인 쇼터 콰르텟의 공연이 진리다.

Wayne Shorter Quartet's first visit to LG Arts Center in 2010 was highly acclaimed as "a truly unforgettable event" among Korean music fans. It was an absolutely spellbinding improvisation from beginning to end through their perfect skill, great harmony and commitment to the spirit of music. Once again, Wayne Shorter and his stellar quartet(Brian Blade on drums, John Patitucci on bass, Danilo Perez on piano) will give you masterful music experience. If you want to hear true masters' live jazz, it will be 'the best of the best' choice.

4.12<sup>sat</sup>

7pm

VIP 110,000

R 90,000

S 60,000

A 40,000

#### LINE-UP

색소폰

웨인 쇼터(Wayne Shorter)

드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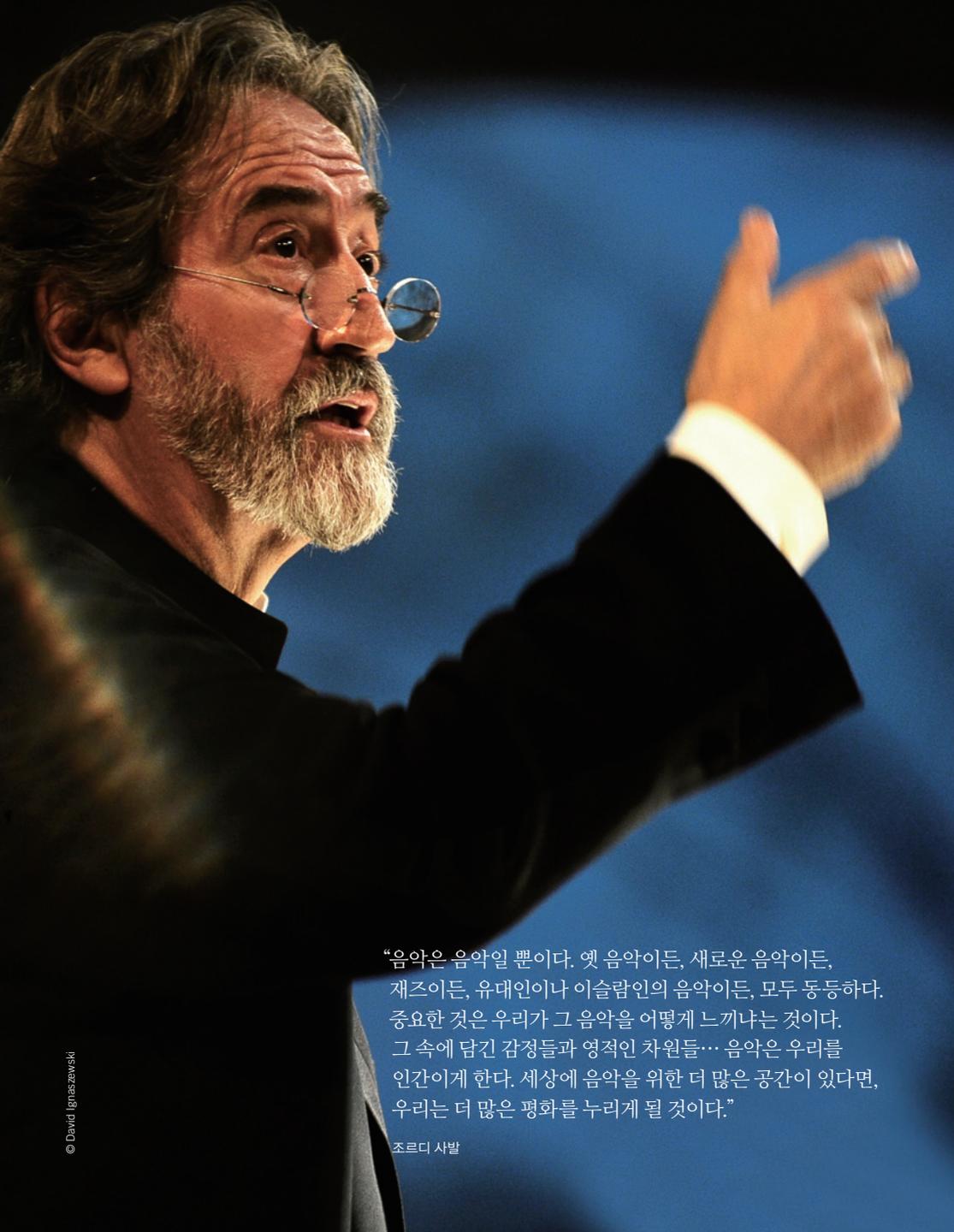
브라이언 블레이드(Brian Blade)

베이스

존 패티투치(John Patitucci)

피아노

다닐로 페레즈(Danilo Perez)



“음악은 음악일 뿐이다. 옛 음악이든, 새로운 음악이든, 재즈이든, 유대인이나 이슬람인의 음악이든, 모두 동등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악을 어떻게 느끼냐는 것이다. 그 속에 담긴 감정들과 영적인 차원들... 음악은 우리를 인간이게 한다. 세상에 음악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조르디 사발

Jordi Savall & Hespèrion XXI

“Orient & Occident”

## 조르디 사발 & 에스페리옹 21 ‘동양과 서양’

### 고음악의 거장이 전하는 고색창연한 음악적 화합

지난 2005년 가족으로 구성된 '에스페리옹 21(Hespèrion XXI)'과 함께 내한하여 이국적이면서도 고색창연한 연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고음악의 영웅, 조르디 사발(Jordi Savall)이 9년 만에 LG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실로 시공의 경계를 초월한 지치지 않는 탐구열로 인간의 음악 역사를 조망해 오고 있는 조르디 사발이 이번 내한에서 소개할 프로그램의 주제는 “동양과 서양”이다. 정치적, 종교적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오늘날 아득하게 멀어진 아랍의 이슬람 문화권과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의 음악적 공통 분모를 찾아 조르디 사발은 13-18세기 지중해 연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에스페리옹 21'로 불러모은 세 명의 아랍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펼쳐 보일 섬세한 튀앙스의 멋스런 연주와 생명력 넘치는 음악적 화합은 더 이상 어떤 것이 동양의 음악이고 어떤 것이 서양의 음악인지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만큼 놀랍도록 유사한 음악적 정서를 느끼게 한다.

조르디 사발은 이번 공연에서 중세 유럽의 현악기인 비엘(vielle)과 더불어 아랍의 전통 현악기 레باب(rebab)을 직접 연주하며 다른 연주자들과의 완벽한 교감과 호흡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들이 빚어내는 넘실대는 타악기의 리듬과 절묘한 화음, 물결 같은 선율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명이 되어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조르디 사발을 존경하는 클래식 애호가뿐 아니라 월드뮤직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기회!

Jordi Savall, who is one of the greatest figures in early music, returns to LG Arts Center in 9 years with his ensemble Hespèrion XXI of musicians from the Mediterranean region. They will present a program titled “Orient & Occident,” which takes the audience back to the 13th ~ 18th century where the East and the West had no striking discrepancies in musical sensibilities. This exquisite program played by superb musicians should not be missed for classical and world music audiences alike!

4.29 tue

8pm

R 90,000

S 70,000

A 50,000

B 30,000

공연 시간

2시간, 휴식 포함

DURATION

2hrs. incl. an interval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카운터테너의 신!”

독일, Süddeutsche Zeitung



© Marc Ribes

## 필립 자로스키 &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

### 천사의 목소리와 악마의 기교를 가진 자로스키의 첫 내한

안드레아스 슐(Andreas Scholl) 이후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카운터테너로 현재 유럽 주요 무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인기 절정의 필립 자로스키(Philippe Jaroussky)가 처음으로 내한한다.

프랑스 태생의 자로스키는 빈틈 없는 테크닉에 섬세하면서도 강한 미성, 그리고 화려한 무대 매너와 수려한 용모로 바로크 오페라 및 콘서트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으며, 매번 흥미로운 테마와 구성으로 발매하는 음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평단의 찬사를 끌어내며 프랑스 황금 디아파종상 및 음악의 승리상, 독일의 예코 클래식 어워드 등을 휩쓸 바 있다.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를 대동한 자로스키의 첫 내한공연은 18세기 유럽 오페라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카스트라토(castrato, '거세 가수')인 파리넬리(Farinelli, 1705-1782)와 카레스티니(Carestini, c.1704-c.1760)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소름 돋는 눈부신 테크닉의 소유자였던 파리넬리와 더없이 순수한 음색과 심오한 표현력이 돋보였던 카레스티니는 지난 몇 년간 자로스키를 사로잡은 인물들로, 애정을 담아 세심하게 구성한 완성도 높은 음반(버진 클래식 & 에라토)들을 통해 이미 격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이 두 거장을 끼고 한때 런던의 오페라계를 양분했던 작곡가인 포르포라(Porpora)와 헨델(Händel)이 경쟁적으로 작곡한 아름다운 아리아들을 다양한 기악곡과 함께 펼쳐 보일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프로그램으로 흥미와 매력 그리고 감동을 한꺼번에 선사할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시대 최고의 성악가 대열에 선 필립 자로스키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Countertenor Philippe Jaroussky, who took the music world by storm for his radiant, pure voice, will show his acclaimed thrilling performance in a concert joined by illustrious Venice Baroque Orchestra. In his first visit to Korea, he will illustrate a musical battle of two legendary superstar castratos in the 18th century, Farinelli and Carestini. Jaroussky's brilliant musicality and charisma will sparkle in this interesting, compelling program.

4.30<sup>wed</sup>

8pm

VIP 110,000

R 9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2시간, 휴식 포함

DURATION

2hrs. incl. an interval

프로그램

〈전설의 배틀〉

파리넬리 & 포르포라

vs.

카레스티니 & 헨델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piece on Mother and Fatherland” directed by Jan Klata

## 얀 클라타 연출 〈어머니와 조국〉

### 연극 강국, 폴란드 연극의 현주소를 확인하라!

깊이와 다양성으로 연극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폴란드 연극의 현재를 대표하는 이름 얀 클라타(Jan Klata)가 처음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서른 살에 연출을 시작해 데뷔 10년 만에 폴란드 연극계를 리드한 가장 중요한 연출가로 손꼽힌 그의 이번 작품은 2011년 폴스키 극장 초연 이래 폴란드 전역을 비롯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러시아, 루마니아, 스위스, 일본 등 세계 여러 연극 페스티벌에서 공연되었으며, 폴란드에서 그 해 공연한 가장 우수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여는 ‘Cracow Divine Comedy Festival’의 최고 연출상을 비롯해 수많은 페스티벌에서 수여하는 최고 연출상, 작품상 등을 휩쓸었다.

폴란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Nike Literary Award’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보제나 케프(Bożena Keff)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계 폴란드 어머니, 역사의 무게와 전쟁에 대한 어머니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는 딸과의 관계 속에서 조국과 역사, 어머니와 딸,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격정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하고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어머니와 역사, 내러티브 이 세 가지 커다란 축이 서로 부딪치고 갈등하며 형성하는 긴장감을 음악극적 요소를 적극 활용해 풀어나간 이 작품은 형식적인 면에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양식이나 오라토리오적 요소를 차용하면서 동시에 현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담론까지 담아내는 등 매우 넓은 스타일과 장르를 포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비단 폴란드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쟁을 겪었던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경험했고 극복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비슷한 역사적 소용돌이를 겪어왔던 우리 관객들에게도 가슴 깊은 공감을 줄 것이다.

A prominent Polish director Jan Klata's play adapts Bożena Keff's book 'A Piece on a Mother and the Fatherland' is a cross between an opera, a tragedy and an oratorio. The mixed voices of the Narrator, mother Meter and the Chorus tell the life stories of a mother who has survived the Holocaust, and of her daughter, whom the Mother has trapped in her own suffering. The production of Teatr Polski in Wrocław portrays a dramatic attempt at tackling history by the postwar generation.

5.16 fri - 17 sat

fri 8pm

sat 4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90분, 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with no interval

폴란드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Polish with  
Korean Subtitles

후원

Adam Mickiewicz Institute  
CULTURE.PL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에서 나올 법한 환상적인 이미지, 음악, 의상, 그리고 춤”

영국, British Theatre Guide

“드쿠플레의 다양한 안무 방식과 스타일을 아우르는 흥미진진한 콜라주”

영국, Metro

“Panorama” by Philippe Decouflé, Compagnie DCA

## 필립 드쿠플레 무용단 〈파노라마〉

30년 역사가 응축된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무대가 펼쳐진다!

장르간의 경계를 허물고 혼합과 충돌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현대 공연예술계의 흐름이라면, 이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가 있다. 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기 안무가 겸 연출가 필립 드쿠플레(Philippe Decouflé)다. 그는 춤, 연극, 서커스, 마임, 비디오, 영화, 그래픽, 건축, 패션 등을 뒤섞은 화려한 비주얼과 멀티미디어 효과로 복합 예술 공연의 선두주자로서 무용의 미래를 앞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 〈샤잠(Shazam)〉, 2000년 〈트리톤(Triton)〉으로 한국에 두 차례 내한한 바 있는 드쿠플레는 1992년, 근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개막식으로 회자되는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 개막식 연출을 맡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후에 광고와 뮤직 비디오 연출가로서도 각광을 받았을 뿐 아니라 '태양의 서커스' 쇼 〈아이리스〉, 파리의 3대 카바레 중 하나인 크레이지 호스(Crazy Horse)의 쇼 〈Desire〉를 연출하여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동시에 사랑받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파노라마〉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가 지난 30년간 무용단을 이끌면서 만들었던 대표작을 모은, 그의 변화무쌍한 작품 스타일과 경향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탕빈 카페(Vague Café)〉(1983), 〈Jump〉(1984), 〈트리톤(Triton)〉(1990), 〈Decodex〉(1995), 〈샤잠(Shazam)〉(1998) 등의 주요 장면들이 녹아있는 〈파노라마〉에는 프랑스 특유의 화려한 색채의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줄에 매달려 서커스를 벌이는 듯한 춤을 추기도 하고, 스크린에 투사된 영상과 무용수가 그림자 놀이를 하는 등 시종일관 코믹하고 익살스런 장면들이 펼쳐진다. 2012년 초연된 후, 유럽 전역을 투어한 이 작품에 대해 “무용수의 움직임, 시각적 효과, 코믹한 요소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다”는 평가 함께 무엇보다 재미있고 유쾌하다는 평이 압도적이다. 영똥한 상상력, 기발한 창조성, 그리고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실험으로 현대 공연예술계의 ‘이단아’ 혹은 ‘천재’로 불리는 필립 드쿠플레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Philippe Decouflé, the most imaginative and talented artistic choreographer/director in France, will be bringing a show “Panorama” to Korea. As well-known, he is one of the most profound frontiers of multidisciplinary performing arts. He blends dance, theatre, circus, mime and film and creates completely new and fresh works. “Panorama” links together highlights from his repertoire for last 30 years. If you've not seen works by Philippe Decouflé and Compagnie DCA before, you must grasp this opportunity.

5.31 sat -  
6.1 sun

sat 8pm

sun 4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90분, 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with no interval

“Thieves” by Dea Loher, directed by Andreas Kriegenburg,

Deutsches Theater Berlin

# 도이체스 테아터 〈도둑들〉

164년 전통을 가진 독일 연극의 절대적 이름, 도이체스 테아터의 첫 내한!

보험회사 영업맨 핀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누이 린다는 꿈에서 늑대를 본 후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른 그녀의 운전이 곧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거라 믿고 있다. 슈미트 부부는 어떤 짐승으로부터 감시 받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임신을 한 어린 소녀 미라는 아이를 원치 않지만, 그녀의 나이 많은 남자친구 요제프는 아이를 낳고 싶어한다. 가비와 라이너 부부는 자기들 형편에는 어림도 없는 아파트를 구하는 척 돌아다닌다. 중년의 여자 이라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 버렸다.

다양한 계층의 열두 명의 소시민들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서로 얽히고 만나 타인의 삶이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함을 깨닫는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탁월한 심리묘사 그리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현대 독일 연극계의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 받고 있는 데아 로어가 쓰고, 탁월한 작품 해석력을 보여준 안드레아스 크리겐부르크가 연출하여 2010년 공연된 〈도둑들〉은 독일어권 연극 중 그 해 가장 우수한 10개의 작품을 모아 공연하는 ‘베를린 연극제’에 초청되어 호평 받은 작품이다. 거대한 물레방아를 연상시키는 바퀴가 장면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돌아가며 캐릭터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은 이 작품의 또 다른 볼거리다.

불안한 미래와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회의와 상실감, 녹록지 않은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도둑맞은 사람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어둡지만 코믹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현재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프고 생생하다. 현대 독일 연극계의 생생한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164년 전통의 베를린 도이체스 테아터의 첫 내한 공연, 올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공연이다.

One of the representative and prestigious German theaters, Deutsches Theater Berlin comes to LG Arts Center with “Thieves(Diebe)” written by Dea Loher and directed by Andreas Kriegenburg to show what the German contemporary theater today is. In this work, Dea Loher interweaves 12 individual episodes, and the characters encounter one another in different situations and meet again in surprising ways. A dark and yet comic panorama of people of our time emerges – always peering into the abyss, yet ever hopeful.

6.4 wed - 6 fri

weekdays 7:30pm

\*6.6 3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3시간 30분

휴식 포함

DURATION

3hrs 30mins.

incl. an interval

독일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German

with Korean Subtitles



“날 믿어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훔쳐 사는 사람들 – 마치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거기에 있을 권리조차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우린 도둑들 같아요...” 〈도둑들〉 대사 중에서



## 고란 브레고비치 & 웨딩 앤 퓨너럴 오케스트라 〈집시를 위한 샴페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시 파티가 시작된다!

발칸 반도가 배출한 세계적인 뮤지션 고란 브레고비치가 돌아온다. 2005년과 2006년, 두 번의 LG아트센터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열광적인 환호를 불러 일으켰던 그의 8년 만의 내한이다. 이번 공연은 특히 그 규모면에서 지난 두 공연을 훌쩍 뛰어 넘는다. 스트링 콰르텟, 중창단, 트럼펫, 색소폰, 트럼본, 타악기, 기타 등으로 구성된 무려 19인조의 '웨딩 앤 퓨너럴 오케스트라'가 그와 함께 무대에 서서, 떠들썩하고 한없이 자유로운 집시의 영혼이 담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6.7 sat

7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90분, 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with no interval

10대의 나이에 록 밴드 '비엘로 두그메(Bijelo Dugme)'를 조직해 활동하며 유고슬라비아 최고의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고란 브레고비치는 89년 영화 감독 에밀 쿠스투리차를 만나면서 음악적 전환을 맞게 된다. 〈집시의 시간〉(1989), 〈아리조나 드림〉(1993), 〈언더그라운드〉(1995) 등의 영화 음악을 작곡하며 고란은 10대의 이상에서 벗어나 영화음악 역사상 혁신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명성을 굳히게 되었다. 영화 외에도 그는 연극의 음악작업도 활발히 전개해왔는데, 2002년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되어 큰 화제를 일으켰던 슬로베니아 출신의 토마스 판두르가 연출한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 연옥, 천국 등 단테의 사후 세계를 음악으로 완벽하게 표현해 큰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데뷔한 지 4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전방위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란은 2012년 〈집시를 위한 샴페인〉이라는 매력적인 제목의 앨범을 발매하고 프랑스, 미국, 멕시코, 터키, 스위스 등 세계 투어를 펼치고 있다.

아픈 이도 일으켜서 뛰게 만들 법한 흥겨움, 삶을 긍정하는 순수한 낙천주의 그리고 한순간 찾아오는 역설적인 쓸쓸함까지, 유럽의 변방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고란의 음악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다. 당신이 그간 이들의 음악을 접해보지 못했다 해도 상관없다. 첫 곡이 울려 퍼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삼시간에 무장해제되어 살아있는 집시들의 영혼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One of the most internationally known musicians and composers from the Balkans, Goran Bregović is coming back to Seoul with his Wedding and Funeral Orchestra. He is also well known for original sound tracks for the films of Emir Kusturica – "Time of the Gypsies", "Arizona Dream", and "Underground". This concert also celebrates Goran's new album <Champagne for Gypsies> (2012). Just like his last two visits to Seoul in 2005 & 2006, his music will make the audience thrilled and even go wild.

“듣거나, 죽거나!”

신현준(대중음악평론가)



# 아크람 칸 <데쉬>

## 단연극대, 아크람 칸 최고의 걸작

2007년 실비 킬렘과의 <신성한 괴물들>, 2009년 줄리엣 비노쉬와의 <in-i>, 2011년 아크람 칸 컴퍼니의 <버티컬 로드>를 통해 우리는 혁신적인 안무가이자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있는 예술가 아크람 칸을 만났다. 칸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 무대의 안무에도 참여하며 영국 예술계에서 차지하는 그의 빛나는 위상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칸은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보여준 것일까? 아직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데쉬>를 보기 전까지는...

벵갈어로 '고국(homeland)'이라는 뜻을 지닌 <데쉬(DESH)>는 2011년에 발표한 아크람 칸의 안무작이자 솔로 작품으로 방글라데시계 영국인인 칸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임해 온 자신의 뿌리와 자아에 대한 탐구를 더욱 깊이 있게 승화시킨 한편의 매혹적인 오디세이다. <데쉬>는 또한 2012년 올리비에상 최고의 신작 안무상, 영국 국립 무용상 최고의 남자 무용수상 수상이 입증하듯 칸이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무르익혀 온 예술성의 총체를 쏟아내는 작품이기도 하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고 민첩한 몸으로 인도 전통춤 카타크와 서양 현대무용을 오가는 아크람 칸의 특출난 춤은 올리비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곡가 조슬린 폭(Joscelyn Pook)의 신비로운 음악과 마이클 힐스(Michael Hulls)의 아름다운 조명 그리고 영화 <와호장룡>으로 '아카데미상' 미술상을 수상했던 디자이너 팀 입(Tim Yip)의 놀랍도록 정교한 애니메이션에 힘입어 전세계 언론이 역대 최고라 찬사를 아끼지 않는 한편의 걸작으로 탄생했다.

칸 자신이 태어난 영국과 그의 부모님이 태어난 방글라데시, 이 두 나라와 서로 다른 두 세대, 그 사이의 간극에서 빚어지는 다양하고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마법처럼 신비로운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들과 더불어 흥미진진하고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데쉬>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복잡한 세상과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희로애락으로 출렁거리며 삶을 이어가는 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저릿할 만큼 감동적이다. 공연의 절정에 이르는 어느 순간 무대 위로 무성하게 자라나는 하늘 숲의 아름다운 풍경, 그 사이를 헤치며 우아하게 유평하는 아크람 칸의 모습은 순수한 몸의 움직임을 형상화 해내는 탁월한 무용수로서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스토리텔러로서의 그를 재발견하게 만들 것이다.

"DESH" is a full-length contemporary solo and the most personal work to date from the celebrated choreographer and performer, Akram Khan. "DESH" meaning 'homeland' in Bengali, draws multiple tales of land, nation, resistance and convergence into the body and voice of one man trying to find his balance in an unstable world. For this work, Khan teamed up with Oscar-winning visual artist Tim Yip(Production Designer for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lighting designer Michael Hulls, and composer Jocelyn Pook. Moving between Britain and Bangladesh, Khan weaves threads of memory, experience and myth into a surreal world of surprising connection. At once intimate and epic, "DESH" explores fragility in the face of natural forces, and celebrates the resilience of the human spirit in the rhythms of labor, in dream and story, and in transformation and survival.

“의심의 여지 없이  
아크람 칸 최고의 작품이다”

미국, The New York Times

“아크람 칸의 작품 중 가장  
아름답고 확신에 찬 작품이다”

★★★★★ 영국, The Guardian

6.14 sat - 15 sun

sat 7pm

sun 4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80분, 휴식 없음

DURATION

80mins with no interval

본 공연은 일부 영어  
대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English  
with Korean Subtitles

An Akram Khan  
Company Production

## 테츨라프 콰르텟

“테츨라프 콰르텟은 때로는 포효하는 교향곡처럼,  
때로는 들릴 듯 안 들릴 듯 속삭이는 것 같은  
눈부신 사운드의 팔레트를 만들어낸다.”

미국, The Washington Post



### 실연에서 더욱 눈부신 실력과 4인방

2010년 3시간에 걸친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 연주로 첫 내한 무대를 감동적으로 장식했던 독일의 명(名)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Christian Tetzlaff)가 자신의 실내악단인 테츨라프 콰르텟(Tetzlaff Quartet)을 이끌고 돌아온다.

지적이면서도 깊은 음악가 정신으로 세계 유수의 지휘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정상급 솔리스트로 자리를 굳건히 한 테츨라프지만, 그는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라르스 포그트, 여동생 타냐 등과의 듀오 및 트리오 활동으로도 격찬을 받아온 열렬한 실내악 연주자이기도 하다. 특히 도이체 캄머 필하모닉 브레멘의 수석 첼리스트인 동생 타냐와 함께 1994년에 창단한 현악4중주단인 테츨라프 콰르텟은 에머슨이나 하겐 등 상설 콰르텟과는 달리 네 명의 연주자들이 각자의 솔로 커리어를 유지하다가 비정기적으로 모여 연주활동을 하지만, 모일 때마다 실내악에 대한 갈증과 열정을 폭발시키면서 실연 무대에서 더욱 높은 찬사를 끌어내고 있다.

뉴욕 타임즈가 “대단히 서정적이면서 한 치의 어긋남 없는 세부모사는 흠잡을 데 없이 합치된 균형미와 결합되어 압도적인 연주로 나타났다”고 극찬한 테츨라프 콰르텟의 첫 내한공연은 모차르트와 베토벤 그리고 클라리네티스트이자 우리 시대 명(名)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는 외르그 비트만(Jörg Widmann)의 현악4중주로 꾸며져 신구(新舊)를 조화시킨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Christian Tetzlaff, world renowned German violinist who gave an impressive solo recital in 2010, returns with his string quartet Tetzlaff Quartet. The Quartet is renowned for its impeccable balance and musical unanimity imbued with each member's explosive passion for chamber music. They will present an intriguing program of old and new; Mozart, Widmann, and Beethoven.

10.2<sup>th</sup>u

8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2시간, 휴식 포함

DURATION

2hrs. incl. an interval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Christian Tetzlaff  
한나 바인마이스터,  
Hanna Weinmeister  
엘리자베스 쿠퍼라스  
Elisabeth Kufferath  
타냐 테츨라프  
Tanja Tetzlaff

프로그램

- 모차르트 현악4중주 (TBC)
- 외르그 비트만 '사냥' 4중주
- 베토벤 현악4중주 제15번 Op.132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프라노 서예리 '바로크 & 현대'

###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천 년을 아우르는 소프라노

세계 음악계에서 보기 드물게 서양음악사의 양끝인 고음악과 현대음악의 스페셜리스트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소프라노 서예리가 오는 10월 처음으로 국내 단독 리사이틀을 연다.

음악계가 '천 년을 아우르는 소프라노'로 칭하는 서예리는 수정 같이 맑은 음색,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정확한 음정, 또렷한 디션 구사, 거기에 학구적인 해석이 더해진 남다른 음악성으로 고음악과 현대음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예리는 2003년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오르페오>로 데뷔하여 헤레베헤, 카위컨, 스텔라, 슈페링 등의 바로크 거장들과 작업함과 동시에, 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대곡일지라도 명쾌하고 흥미진진하게 소화함으로써 진은숙, 피에르 볼레즈, 볼프강 림 등 우리 시대 거장 작곡가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2010년 베를린 음악축제에서 볼레즈의 "Pli selon Pli"를 불러 작곡가로부터 "서예리의 크리스탈 같은 목소리로 내 곡이 연주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곧바로 루체른 페스티벌에 초청받기도 했다.

2010년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와 바흐의 소프라노를 위한 칸타타로 바로크를, 2012년 서울시향의 '아르스 노바'에서는 경찰모에 채찍까지 들고 통쾌한 현대음악을 국내에 각각 선보였던 서예리가 이번 자신의 첫 단독 리사이틀에서 자신의 주종목을 1부와 2부에 나눠 펼쳐보일 예정이다. 오르간 반주로 몬테베르디 등의 바로크를 1부로, 피아노 반주의 베리오, 진은숙 등 21세기를 2부로 구성된 이번 리사이틀은 옛 음악은 현대적으로, 새 음악은 고전을 대하듯 자유롭게 넘나드는 팔색조 서예리의 진면목을 한무대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Yeree SUH, internationally acclaimed soprano for her versatility both in baroque and in contemporary, gives her first recital to Korean audience in October. Her crystal clean voice color and highly virtuosic, expressive phrasing with clear diction have garnered rave reviews from critics, public and great composers of our time such as Pierre Boulez, Unsuk Chin. In her first recital, she will be accompanied by organ for baroque in the first half as well as by modern piano for contemporary in the second half.

### 10.3<sup>fri</sup>

7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2시간, 휴식 포함

DURATION

2hrs. incl. an interval

프로그램

- 몬테베르디 : 모테트
- 쿠프랭 : "르송 드 테네브르" 중
- 헨델: 칸타타 HWV145  
"O Numi eterni"
- 베리오: 세쿠엔자 III
- 진은숙: Snags and snarlS
- 리게티: "마카브르의 신비"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훌륭하고 섬세한 경지의 서정적인 노래이다. 바젤에서 보여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신선했던 서예리의 노래가 바로 그러했다. 대단한 성취!”

독일, Badische Zeitung

“서예리는 가장 고상하고 진보한 현대음악에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눈부신지 제대로 보여주었다.”

미국, The New York Times



\* 2012년 런던 워크숍 공연 사진

투게더뮤지컬 리에에 ©

Musical "Woyzeck"

## 뮤지컬 <보이책>

웨스트엔드의 감성으로 제대로 만든 창작 뮤지컬이 온다!

LG아트센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연출가 윤호진과 손잡고 신작 뮤지컬 <보이책>을 선보인다. <명성황후>와 <영웅>을 통해 창작 뮤지컬의 역사를 새롭게 써왔던 윤호진 연출이 지난 8년간 영국 웨스트엔드 스태프들과 함께 준비한 뮤지컬 <보이책>.

24살의 나이로 요절한 독일 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미완성 희곡 <보이책>은 실제 사건을 극화한 작품으로 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그린 작품이다. <보이책>은 인간과 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상징때문에 그 동안 전 세계에서 연극, 무용, 오페라 등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공연되어 왔지만, 뮤지컬로 만들어지는 것은 세계 최초이다.

뮤지컬 <보이책>은 윤호진 연출가의 '영어로 제작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로 2005년 시작되었다. 영국의 그리니치 극장을 통해 50여 개 팀의 창작진들과 접촉하였고, 최종적으로 영국의 언더그라운드 밴드 '싱잉로인즈'가 극작과 음악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의 음악은 주인공 보이책과 마리의 비극적인 헌신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2012년 6월 29일 영국 런던 도심의 채링 크로스 극장에서 <The Ruby Necklace (루비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진 워크숍 공연은 2008년 5월의 첫 워크숍 후, 2010년에 완성된 최종 대본을 다시 2년간 숙성시켜 선보이는 무대였다. <레 미제라블>, <미스 사이공>을 연출한 매트 라이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음악감독 나이젤 릴리 등 웨스트엔드의 유명 스태프가 합류한 워크숍 공연은 웨스트엔드 프로듀서들로부터 신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뮤지컬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본격적인 세계시장 공략에 앞서 LG아트센터에서 국내 배우들과 함께 선보이게 된 뮤지컬 <보이책>은 깊은 영혼의 울림으로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안겨 줄 것이다.

Georg Buchner's unfinished play "Woyzeck" will be staged as a musical vers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Famous Korean musical director and producer Yun Ho-Jin, who is well known for "The Last Empress" and "Hero", and Acom International have developed this project for last 8 years for the purpose of the success in the international musical scene. The Singing Loins, an underground band of U.K., wrote the script and the music combining strong folk guitar melodies and post-punk songs. The lyrical melodies and the sad story of "Woyzeck" will touch many of us to tears.

10.9 thu -  
11.8 sat

weekdays 8pm

weekend 3pm & 7pm

\* 10.9 7pm

\* 월요일 공연 없음

R 80,000

S 60,000

A 40,000

공동 제작

(주)에이콤 인터내셔널



© Marco Borggreve

“크리스토퍼 호그우드는 최고의 연주자임은 물론 음악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영국, BBC Music Magazine

“바흐 솔리스트 서울은 때로는 흐느끼듯 때로는 때로는 환호하듯 미사 통상문의 가사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고(古)음악 연주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 무대!”

연합뉴스, 최은규 음악칼럼니스트 (2011년 마사야카 스키와의 공연 리뷰 중)



© JD Woo

##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 바흐 솔리스트 서울

마사야카 스키, 리처드 이가 등 세계 고음악 거장과 한국의 전도유망한 바로크 앙상블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선보여온 LG아트센터가 이번에는 영국 고음악의 대가인 크리스토퍼 호그우드(Christopher Hogwood)와 바흐 솔리스트 서울(Bachsolisten Seoul, BSS/음악감독 박승희)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1973년 창단 이후 현재까지도 영국을 대표하는 바로크 앙상블로 손꼽히는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Academy of Ancient Music, AAM)'의 창립자인 크리스토퍼 호그우드는 존 엘리엇 가디너 경, 트레버 피노크 등과 함께 1960-70년대 영국에서 고음악 부흥 운동을 일으킨 선구적인 인물이다. 그는 바흐, 헨델, 퍼셀, 비발디 등 당대 악기로 연주한 200여장이 넘는 기념비적인 음반들과 오랜 세월 헌신해온 역사주의 연주운동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수많은 저서들을 남기며 세계 고음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2001년 AAM과의 내한에서 모차르트 교향곡으로 시대악기 연주의 정수를 선보였던 그는 13년 만에 돌아오는 국내 무대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연주자로만 구성된 바로크 앙상블을 지휘한다. 호그우드와 호흡을 맞출 바흐 솔리스트 서울은 2011년 마사야카 스키와의 공연 이후 꾸준히 바흐 칸타타 시리즈를 이어나가는 등 어려운 국내 고음악 환경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국내 유일의 바로크 앙상블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12년 7월 라이프치히 바흐 콩쿠르에 참가했던 BSS의 카운터테너 정민호가 심사위원이었던 호그우드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성사되었기에 더욱 기대를 모은다.

호그우드의 장기인 헨델의 곡들뿐만 아니라 꾸며질 이번 무대는 기악곡, 종교합창곡 및 솔로 칸타타 등 다채로운 음악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할 예정이며, 더불어 다시 한번 세계적인 대가와 만난 한국 바로크 앙상블의 도약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Christopher Hogwood, a pioneer of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direct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Korean baroque ensembles, Bachsolisten Seoul(BSS) for the first time. Hogwood is the founder of the leading British early music ensemble, Academy of Ancient Music and has made over 200 recordings of various baroque masterpieces such as Bach, Händel and Vivaldi on period instruments. This meaningful collaboration of the esteemed maestro and the young promising ensemble was realized as a result of the maestro's recognition of the talent of a BSS' counter-tenor at the Bach Competition Leipzig in 2012. In this concert, they will present 'all-Händel program' which is one of Hogwood's specialties and it will make audiences enjoy the essence of Händel's great music.

11.9 sun

7pm

R 90,000

S 70,000

A 50,000

B 30,000

공연 시간

2시간, 휴식 포함

DURATION

2hrs. incl. an interval

프로그램

<All Händel>

•대관식 찬가 中

HWV 258 & HWV 261

•콘체르토 그로스 Op.6 No.1

•솔로 칸타타 "심장이 요동치네 (Mi palpita il cor)"

•"주께서 말씀하셨다 (Dixit Dominus)"

공동 주최

바흐 솔리스트 서울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벵자멩 밀피에 & L.A. 댄스 프로젝트

향후 유럽 무용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거장으로 촉망받고 있는 현재 가장 '핫'한 안무가, 벵자멩 밀피에의 'L.A. 댄스 프로젝트'가 한국 관객들에게 공개된다.

대런 아로노프스키의 영화 <블랙 스완>의 안무가이자 나탈리 포트만의 남편으로 대중에게 더 알려진 벵자멩 밀피에이지만 그는 이미 무용계에서는 저명한 인물이었다. 밀피에는 뉴욕시티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출신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 마린스키 발레단, 리옹 오페라 발레단 등 내로라하는 무용 단체의 안무를 맡아왔을 뿐 아니라, 2014년부터는 겨우 37세의 나이로 프랑스의 대표 무용단인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소식이 취임 1년만 전인 2013년 상반기부터 전해지면서 언론과 무용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벵자멩 밀피에는 2012년 미국 LA에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겠다"며 무용단 L.A. 댄스 프로젝트를 설립했는데, 창단 2년만에 리옹 무용의 집, 프랑스의 샤틀레 극장 및 사이오 극장, 런던의 새들러스 웰스, 로스 엔젤레스 뮤직 센터 등 세계의 주요한 극장과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암스테르담 홀랜드 페스티벌 등 주요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광적인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 뮤지션, 디자이너, 작곡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동작업을 통해 무용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는 L.A. 댄스 프로젝트의 작업은 단순히 여러 장르의 예술을 콜라보레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무용계의 새로운 지각변동과도 같았다.

이번에 소개될 작품은 1993년 윌리엄 포사이드가 안무하여 세계 여러 무용단들에 의해 20년째 리바이벌될 정도로 사랑 받고 있는 <퀵>과 2013년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벵자멩 밀피에 안무로 초연된 <리플렉션>으로, 특히 신작 <리플렉션>은 미국의 유명 사진작가이자 비주얼 아티스트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의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한 색감의 무대와 폴리처상 수상자이자 뱅 온 어 캔의 창단 멤버인 데이빗 랭(David Lang)의 미니멀한 피아노 음악이 덧입혀져 마치 무용수가 건반 위를 뛰어 노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세계 예술계가 사랑하는 벵자멩 밀피에가 무용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한 L.A. 댄스 프로젝트, 세계 공연계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놓쳐서는 안 될 공연이다.

**11.13** thu -  
**14** fri

**8pm**

R 70,000

S 50,000

A 30,000

**공연 시간**

80분, 휴식 없음

**DURATION**

80mins with no interval

Benjamin Millepied, widely known for his work in Darren Aronofsky's 'Black Swan' in which he choreographed and starred, reveals his creative work and his own company L.A. Dance Projec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L.A. Dance Project's is an artist collective founded in 2012 and their mission is to create new works and to revive seminal collaborations from multidisciplinary artists. Millepied is well-known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choreographers in his generation and from fall 2014, he will be the new director of the prestigious Paris Opera Ballet. The programs in his troupe's first visit to Korea are "Reflections" scored by David Lang and choreographed by Benjamin Millepied, and "Quintett" choreographed by William Forsythe. Their sensational performances will lead you to a new work of art in modern dance.

“노련과 실험, 경륜과 젊음 같은  
상반된 듯한 요소들이 모두  
그의 무대 안에 공존한다.”

구히서(연극평론가)

New creation directed by KIM Kwang-Bo

## 김광보 연출 신작

### 지금 대한민국 연극계가 가장 주목하는 연출가

2014년 LG아트센터 기획공연 CoMPAS14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연출가는 올해로 연출 데뷔 20주년을 맞는 김광보 연출이다. 1994년 극단 〈청우〉를 창단하면서 첫 작품 〈종로 고양이〉로 강렬한 데뷔 무대를 만든 이후, 그는 〈인류 최초의 키스〉, 〈발자국 안에서〉, 〈엠 버터플라이〉, 〈주인이 오셨다〉, 〈그게 아닌데〉,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그리고 최근작 〈전쟁터를 훔친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화제작을 만들어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고 볼 수 있는 연출가로 자리매김했다. 치밀한 작품 분석과 분명한 캐릭터 설정, 군더더기 없는 연출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꾸준히 만들어온 김광보 연출의 최근 몇 년간의 행보는 특히 화려하다. 2012년에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로 ‘대한민국연극대상’ 연출상, 〈그게 아닌데〉로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 ‘히서 연극상’의 올해의 연극인상 등 대부분의 연극상을 휩쓸고 2012년을 ‘김광보의 해’로 만들어 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바 있다.

원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지키면서도 관객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연출가로 유명한 그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는 연출가’로 정평이 나왔다.

양정웅 연출의 〈페르 권트〉, 서재형 연출의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 이자람의 〈역척가〉 등 매년 한 작품씩 국내외 관객들에게 사랑 받는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온 LG아트센터와 자신만의 색깔을 단단히 지켜오고 있는 가장 신뢰받는 연출가 김광보와의 만남이 어떤 불꽃을 일으킬지 기대해 보자.

LG Arts Center's 2014 choice for Korean artist is director KIM Kwang-Bo, who will celebrate his 20-year career with his new production in November. Ever since his first production "Jongno Cat" that made a strong impression on the theatrical scene in 1994, he has continued to develop his distinctive style of minimalism with thorough analysis of the scripts(texts), specific characterization, and direction of no superfluties. He is now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reliable directors in Korea whose works win both artistic quality and popularity with public. KIM's new creation in November in collaboration with LG Arts Center will be greatly anticipated as much as LG Arts Center's previous successful partnerships with such artists as YANG Jung Ung, LEE Jaram, and SEO Jae-Hyung.

11.19 wed -  
30 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sun 4pm

R 50,000  
S 40,000  
A 30,000

제작  
LG아트센터

신한카드

# 러시 아워 콘서트

딱 막힌 당신의 마음을 뺏 뚫어주는 한 시간의 음악 여행!

'복잡한 퇴근 시간, 생맥주처럼 가볍게 들이키는 공연 한 편'의 컨셉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러시 아워 콘서트'가 2014년 더욱 업그레이드된 라인업으로 돌아온다.

2014년 '러시 아워 콘서트'에서는 월드 뮤직의 아이콘 '하림'과 '집시 & 피쉬 오케스트라'의 합동 무대를 시작으로, 흥대 인디 밴드 1세대이며, <반칙왕>, <복수는 나의 것> 등의 영화 음악을 통해 강렬하고 개성 넘치는 음악을 선보이며 단단한 마니아 층을 확보하고 있는 '어어부 프로젝트'가 그 뒤를 잇는다. 쉽고 재미있는 설명과 귀에 익숙한 음악을 들려주며 '러시 아워 콘서트'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어디선가 들었을 법한 클래식'이 클래식 공연에서 자주 연주되는 앵글 곡들을 모은 '조재혁의 앙코르, 앙코르!'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억척가>의 소리꾼으로 3년간 LG아트센터 무대를 매진시킨 이자람이 이번에는 한복을 벗어 던지고 인디 밴드 보컬로 변신하여 관객들을 만난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재미있고, 독특한 무대, 공연장과 친하지 않았던 초보 관객부터 진지한 마니아 관객까지 모두가 즐거워지는 '러시 아워 콘서트'.

오늘 하루는 청량감 넘치는 '러시 아워 콘서트'와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보다 가볍하게 귀갓길에 오르자!

티켓 금액 전석 20,000

티켓 오픈 2014년 2월 예정

\* 신한카드 결제 시 10% 할인되며,  
LG아트센터 회원의 경우 아트포인트 사용 및 적립이 가능합니다.

3/14(금) 7pm 하림, 집시 & 피쉬 오케스트라

4/11(금) 7pm 어어부 프로젝트

5/13(화) 7pm 어디선가 들었을 법한 클래식 3 \_ 조재혁의 앙코르, 앙코르!

11/10(월) 7pm 아마도이자람밴드

\* 러시 아워의 열혈 팬들을 위한 '러시 아워 콘서트 패키지'가 새롭게 오픈합니다.

- 4편의 러시 아워 콘서트 중 3편 이상 구매 시 20% 할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CoMPAS14 패키지

CoMPAS14 PACKAGES

그 어떤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감동, LG아트센터에 있습니다.  
2000년 개관부터 이어져 온 LG아트센터 기획공연 패키지,  
올해도 변함없이 최고의 감동과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Become an LG Arts Center subscriber and enjoy exclusive benefits!  
It's a great chance to save up to 40%  
to see the world's best performances.

패키지 티켓 오픈  
2014. 1. 6(월) 9am

PACKAGE TICKETS ON SALE  
9am, Mon 6 Jan, 2014



## 패키지 종류 PACKAGES

장르 패키지	더블 패키지	자유 패키지
연극 패키지	연극 & 무용	원하는 작품을 골라
무용 패키지	9편을 모두 보는	큰 할인으로 보는
클래식 패키지	연극/무용	프리 스타일 패키지
재즈 & 월드뮤직 패키지	매니아 패키지	

## 패키지 혜택

- 최고 40%, 최대 532,000원 할인 혜택!
- 패키지 카드 발급 - 카드 제시 시, LG아트센터 메인 로비 카페 10% 할인
- 동행인 할인 20%, 최대 2매  
(패키지 선택 공연 대상, 전화로 구매 가능)

## 패키지 이용방법

- 인터넷, 전화 및 방문 예매가 가능합니다.
- 각 패키지별 구매 가능 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하신 패키지의 해당 첫 공연 시작일부부터는 취소 및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만 선택 가능합니다.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 러시 아워 콘서트는 CoMPAS14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예매

홈페이지 [www.lgart.com](http://www.lgart.com)  
 매표소 운영 시간 : 평일 9am - 6pm (주말, 공휴일 휴무)  
 Tel. 02-2005-0114  
 Fax. 02-2005-1538

## Genre Packages

**R 25% S 20% A 20%**  
 Theatre Package  
 Dance Package  
 Classical Music Package  
 Jazz & World Music Package

## Double Package (Theatre + Dance)

**R, S, A 40%**  
 Save up to ₩264,000 when  
 choosing the top grade for  
 9 programs.

## Free Choice Packages

**35% for 10 or more**  
**25% for 7 or more**  
**15% for 5 or more**  
 Make your own selections!  
 Save up to ₩532,000 when  
 choosing the top grade for  
 all season programs.

## HOW TO PURCHASE

- Package tickets can be purchased by phone call, online or at the box office.
- Purchased package tickets cannot be refunded nor altered after the first performance in the packaged programs.

## WHEN TO PURCHASE

- Free Choice Packages: ~ until Thu, Oct 2, 2014.
- Theatre, Dance, Double Packages: ~ until Wed, Mar 5, 2014.
- The other Packages: ~ until the day before the first performance in the packaged programs.

## INQUIRY & BOOKING

[www.lgart.com](http://www.lgart.com)  
 Box Office : Weekdays 9am-6pm (Off on weekend, national holidays)  
 Tel : +82(2) 2005-0114  
 Fax : +82(2) 2005-1538  
 E-mail : [arts2005@lgart.com](mailto:arts2005@lgart.com)

장르 패키지 종류	예매 기간	할인율	패키지 구성
<b>연극 패키지</b> THEATRE PACKAGE	1. 6(월) ~ 3. 5(수)	<b>R 25%</b> 330,000 → 247,500 won <b>S 20%</b> 240,000 → 192,000 won <b>A 20%</b> 150,000 → 120,000 won	모두 선택 + <보이책> 추가 가능
<b>무용 패키지</b> DANCE PACKAGE	1. 6(월) ~ 3. 5(수)	<b>R 25%</b> 380,000 → 285,000 won <b>S 20%</b> 280,000 → 224,000 won <b>A 20%</b> 180,000 → 144,000 won	모두 선택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b>클래식 패키지</b> CLASSICAL MUSIC PACKAGE	1. 6(월) ~ 4. 1(화)	<b>R 25%</b> 490,000 → 367,500 won <b>S 20%</b> 360,000 → 288,000 won <b>A 20%</b> 240,000 → 192,000 won	모두 선택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b>재즈 &amp; 월드뮤직 패키지</b> JAZZ & WORLD MUSIC PACKAGE	1. 6(월) ~ 3. 14(금)	<b>R 25%</b> 250,000 → 187,500 won <b>S 20%</b> 180,000 → 144,000 won <b>A 20%</b> 120,000 → 96,000 won	모두 선택 + '조르디 사발' 추가 가능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해당 공연					
 <키스 앤 크라이> 3.6(목)-9(일)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무사시> 3.21(금)-23(일)	 안 클라타 연출 <어머니와 조국> 5.16(금)-17(토)	 도이체스 테아터 <도둑들> 6.4(수)-6(금)	 김광보 연출 신작 11.19(수)-30(일)	 <b>+ 추가 가능</b> 뮤지컬 <보이책> 10.9(목)-11.8(토)
 <키스 앤 크라이> 3.6(목) - 9(일)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Full Moon> 3.28(금)-31(일)	 필립 드쿠플레 무용단 <파노라마> 5.31(토)-6.1(일)	 아크람 칸 <데쉬> 6.14(토)-15(일)	 뱅자맹 밀피예 & L.A. 댄스 프로젝트 11.13(목)-14(금)	
 뱅 온 여 캔 올스타 4.2(수)	 조르디 사발 & 에스페리옹 21 '동양과 서양' 4.29(화)	 필립 자로스키 &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 4.30(수)	 테클라프 카르렛 10.2(목)	 소프라노 서예리 '바로크 & 현대' 10.3(금)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 바흐 솔리스트들 서울 11.9(일)
 오마르 소사 & 파올로 프레스 3.15(토)	 웨인 쇼터 카르렛 4.12(토)	 고란 브레고비치 & 웨딩 앤 퓨너럴 오케스트라 6.7(토)	 <b>+ 추가 가능</b> 조르디 사발 & 에스페리옹 21 '동양과 서양' 4.29(화)		

패키지 종류	예매 기간	할인율
<b>더블 패키지</b> DOUBLE (THEATRE + DANCE) PACKAGE	1. 6(월) ~ 3. 5(수)	<b>연극 &amp; 무용 총 9편을 모두 관람 시 전 등급 40% 할인!</b>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b>R 40%</b> 640,000 → 384,000 won <b>S 40%</b> 470,000 → 282,000 won <b>A 40%</b> 300,000 → 180,000 won  + 추가 가능 뮤지컬 <보이첵> 10.9(목)-11.8(토)
<b>자유 패키지</b> FREE CHOICE PACKAGES	1. 6(월) ~ 10. 2(목)	2014년 모든 기획공연을 대상으로 동일 좌석등급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b>10편 이상 35% 할인</b> <b>7편 이상 25% 할인</b> <b>5편 이상 15% 할인</b>

MAKE YOUR OWN SELECTIONS!

## LG아트센터의 회원이 되세요!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시면 24시간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매/취소하실 수 있고, 좌석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획공연 구입금액의 5%를 아트포인트로 쌓아서 나중에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가입비, 연회비도 없고, 공연을 보면 볼수록 많아지는 혜택을 누리시려면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세요!

### 가입 혜택

-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시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 LG아트센터의 공연 정보를 e-mail과 우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 사전 예매한 공연 내역은 관람 3일 전에 SMS와 e-mail을 보내드립니다.
- 기획공연 티켓 구매 시 구입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10% 초과 할인 구매 시 적립 불가)
- 아트포인트는 주차권 구매 및 기획공연 티켓 할인, 프로그램 교환 등 원하시는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 지하철**
- 2호선 역삼역에서 하차 후 7번 출구 방향으로 가시면 GS타워 지하 1층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 1층에서 LG아트센터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 공연 전 혼잡을 피하시려면, 역삼역 8번 출구에서 직진 후 첫 번째 코너(현. 엔젤리너스 커피)에서 좌회전하시어, LG아트센터 메인 로비로 오시면 됩니다.
- 버스**
- 146, 147, 360, 730 - 역삼역 정류장 하차
- 주차**
- 자가 차량 이용 시, 주차는 GS타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공연을 보신 분에 한해 LG아트센터 메인 로비의 정산소에서 할인된 금액(3,000원, 4시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예매** LG아트센터 02-2005-0114 / www.lgart.com

## 제휴 레스토랑 할인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입장권 또는 예매 확인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타 쿠폰 및 할인 카드와 중복 사용 불가)

### KOREAN 🍴

#### 손수현 (한식)

GS타워 지하 1층  
02-2005-1005~6  
11:30-14:30 / 17:30-22:00 (일요일 휴무)  
식사 금액 10% 할인

### WESTERN 🍴

#### 지아니스 나폴리 (이탈리안 비스트로 & 화덕 피자)

GS타워 정문 맞은편 2층  
02-566-0501  
11:00-23:00 (라스트 오더 22시)  
지아니스 시저 샐러드 제공

#### 보나베띠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GS타워 정문 맞은편 '본가' 건물 3층  
02-569-8253  
11:30-24:00 (일요일 휴무)  
평일 10%, 토요일 20% 할인

#### 쉐 조세피나 (캐주얼 프렌치 스테이크 & 부야베스)

역삼역 8번 출구 아주빌딩 2층  
02-3288-3700  
11:30-22:00  
특가 3만원 세트 제공  
(샐러드 + 수프+ 메인 "스테이크 or 생선")

### BUFFET 🍴

#### 오리옥스 (오리엔탈 뷔페)

GS타워 지하 1층  
02-2005-1007~8  
11:30-14:30 / 18:00-22:00  
식사 금액 10% 할인

### ASIAN 🍴

#### 싱카이 (중식당)

GS타워 지하 1층  
02-2005-1003~4  
11:30-14:30 / 18:00-22:00  
식사 금액 10% 할인

#### 강가 (인도식 커리)

GS타워 지하 1층  
02-2005-0610  
11:30-15:00 / 17:30-22:00  
세트메뉴 10% 할인 (티켓 1매 당 1세트)

#### 생어거스틴 (타이 레스토랑)

역삼역 2번출구 GFC 지하1층  
02-533-5101  
11:00-21:00  
10% 할인 (주류 제외) / 6인 이상 예약 시 와인 1병 제공

#### 아리산 (중식당)

역삼역 2,3번 출구 GFC 후문 앞  
02-538-9205  
11:00-06:00  
평일 10%, 주말 20% 할인

### COFFEE ☕

#### 탐앤탐스 역삼GS타워점

LG아트센터 정문(3층) 좌측 맞은편  
02-568-4565  
24시간  
10% 할인 또는 사이즈 무료 업그레이드  
(티켓 1매당 1잔)